

Instant comment

[주간: 知] 한 계단 한 계단 (9월 1주)

■ 주간 시황 : 악재를 소화하며 다시 제자리

- 주간(8/21~8/27) KOSPI +0.9%, KOSDAQ -0.4% 등락.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지수 수익률보다 조정 이후 하단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중요했던 한 주. 전주 삼성전자가 2026년 90~110조원의 주주환원 재원을 제시했음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와 S7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다만 2024~26년 누적 환원 규모는 119.3~139.3조원에 달하고 3분기 약 30조원 현금배당 이후에도 추가 환원재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훼손보다 SK하이닉스 발표 이후 과도하게 높아졌던 환원 기대의 되돌림 성격이 강했음
- 이후 시장은 빠르게 하단 확인.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기타법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연일 지속되며 외국인 매도 충격을 완충. 이후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와 장기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며 KOSPI는 3거래일 연속 상승. 이번 조정을 통해 주주환원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실제 시장 수급과 주가 하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
- 주 후반에는 실적과 통화정책 측면의 불확실성도 완화. 엔비디아는 FY28 매출 성장률 약 70%를 제시했고 AWS와의 GPU 200만개 추가 배치 계획도 공개. 공급·생산능력 관련 약정 역시 전분기 1,190억달러에서 2,79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AI 수요 둔화보다 공급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확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엔비디아 등 구매자의 마진에는 부담이지만,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가격결정력과 이익추정치 상황을 지지하는 환경
- 금통위도 결과 자체보다 향후 경로가 중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3%, 2.9%로 대폭 상향. 반면 향후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은 3.25%에 머물렀고 기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라는 문구도 삭제. 성장과 근원물가 전망 상향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연속 인상을 선제적 대응으로 규정한 만큼 단기간 급격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완화. 주식시장에는 이익 성장 전망은 높아지는 반면 할인율의 추가 상승 부담은 예상보다 제한된 조합

■ 전략 : V자는 아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 전략의 큰 변화는 없음. 오히려 이번 주 변동성을 거치며 KOSPI 대형주 선호 논리가 강화됐다는 판단.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AI 투자 확대에 따른 회사채 발행 등 장기금리를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 남아 있어 지수 전반의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 결국 높은 할인율을 상쇄할 수 있는 이익 성장과 현금흐름, 주주환원, 실제 매수 수급을 동시에 보유한 종목으로 자금이 압축될 가능성. 기존의 "금리가 상단을 제약하고 주주환원이 하단을 지지"하는 구도가 여전히 유효. 다음주 고용보고서라는 금리 영향 미칠 이벤트와 수출이라는 실적 확신 가지게 해줄 이벤트에 주목할 이유

Instant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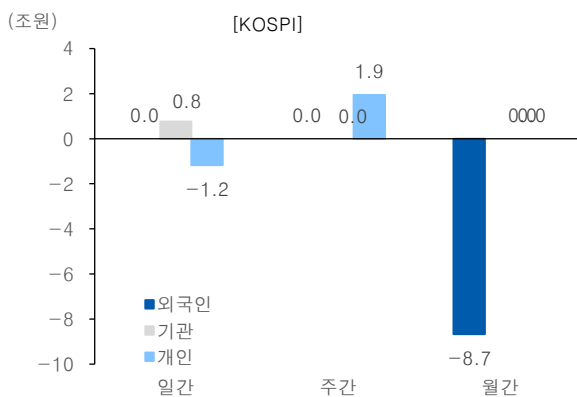
- 반도체 대형주는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AI 수요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재확인됐고, 이익 증가가 향후 주주환원 여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시 저가매수 관점 유지. IT 이외에서는 이익추정치 상향 대비 상대수익률이 제한된 조선과 보험을 대안으로 선호.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견제와 AI Capex 확대가 동시에 적용되는 전력기기와 ESS 역시 정책 모멘텀 지속 가능성에 주목
- 반면 KOSDAQ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등 업종 간 순환매는 활발하지만 주도 업종의 지속성은 여전히 부족.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고밸류 성장주의 할인율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지수 추격보다는 실적과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 대응 필요. 결국 이번 주는 강한 V자 반등보다 악재를 하나씩 소화하며 하단을 높여간 한 주.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는 기타법인의 하단 지지에 더해 외국인의 추세적인 순매수 복귀가 동반되는지 여부가 결정할 전망. 유가와 시장금리의 안정화에 달렸다는 판단

다음주 일정

	8월 31일(월)	9월 1일(화)	9월 2일(수)	9월 3일(목)	9월 4일(금)
경제지표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 JOLTs 고용보고서 한국) 8월 수출	미국) ADP 민간고용, 연준 베이지북	미국) 8월 ISM 서비스업지수,	미국) 8월 고용보고서
기업			미국) 브로드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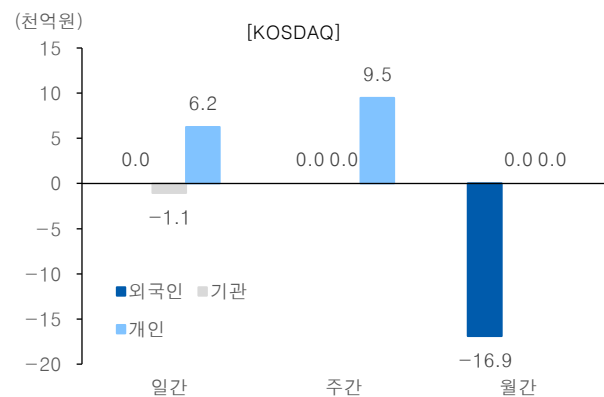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KOSPI 수급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KOSDAQ 수급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nstant comment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